Daishin 증권

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포스트 반도체는 "트랜스포머 현대차?

-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천피"도 가시권, FOMO 심리는 경계
- 반도체 이후의 기대주, 로봇으로 변신한 현대차
-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주인 우주/항공, 조선 기대감 지속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주간 퀀틴전시 플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확인할 시간. 저평가 내수주 주목

- 12MF EPS, 12월 15일 403.8p에서 463.7p로 레벨업. KOSPI 5,000 가시권 진입
- 반도체 및 KOSPI 12MF EPS 상승세 주춤. 현실 간 괴리로 인한 조정 불가피
- 순환매 대응, 밸류에이션 저평가 업종 주목, 주도주 조정시 매수 기회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1 월 4 주차

- 유럽 증시, 1월 효과 지속(ECB, 경제전망 상향+낮은 물가 공식화 긍정 해석)
- 미국-대만 무역 협상 타결. TSMC, 26년 매출 증가 및 CapEx 상향 기대. 리얼티인컴,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전략적 제휴 체결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Taiwan ETF(ECH), [미국주식] TSMC(TSM), [글로벌리츠] 리얼티인컴(O)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포스트 반도체는 "트랜스포머" 현대차?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천피"도 가시권, FOMO 심리는 경계
- 반도체 이후의 기대주, 로봇으로 변신한 현대차
-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주인 우주/항공, 조선 기대감 지속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천피"도 가시권, FOMO 심리는 경계

– 코스피는 2026년이 시작된 이후 전 거래일(12일) 연속 상승, 신고가 랠리를 통해 4,900선에 도달하며 5,000포인트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

– 다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아 지수는 오르지만 체감 상승은 낮은 대형주 쏠림현상 지속. 랠리의 퀄리티는 제한적이며 피로감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유의

–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재점화, 대만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반도체 투자요구 등 관세 노이즈, 연준 의장 선임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

– 미국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지만 선물시장은 하락. 당분간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추격매수 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 중심의 순환매 대응에 집중할 것을 권고

반도체 이후의 기대주, 로봇으로 변신한 현대차

– 연초 실적 상승을 주도한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세는 정점 통과 이후 숨고르기,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 순환매 진행

– 순환매와 함께 '포스트 반도체' 주도주를 찾기위한 움직임은 피지컬 AI로 이동, 현대차그룹과 LG전자 등 로봇사업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 현대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 등극

– 현대차그룹 이외에도 주요 로봇주가 20% 이상 급등. 단순 자동화를 넘어선 휴머노이드 상용화 기대감이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모습

반도체: 삼성전자(+0.3%), SK하이닉스(+1.1%), 장비: 기가비스(+12.4%)

현대차그룹: 현대차(+16.2%), 기아(+12.2%), 현대무벡스(+20.5%)

로봇: LG전자(+8.6%), 두산로보틱스(+19.1%), 휴림로봇(+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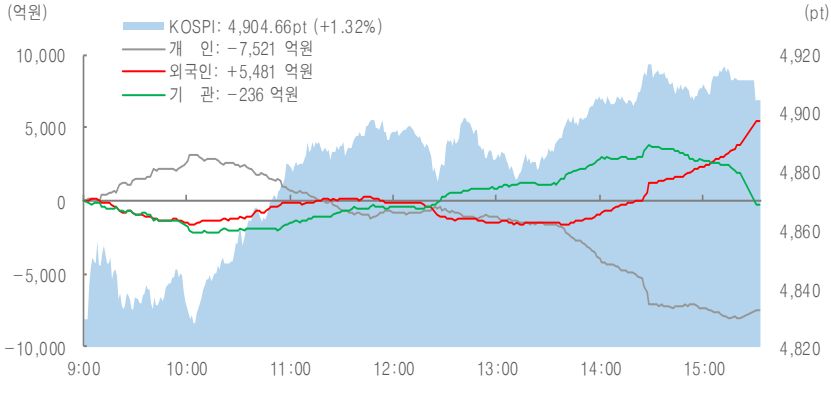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주인 우주/항공, 조선 기대감 지속

– 황금 돔/MASGA 프로젝트 등 정책 모멘텀에 더해 북극 그린란드 지역 관련된 정치/관세 갈등 지속되며 조선/방산 이슈에 따른 상승 지속, 아르테미스 2호 미션 또한 2월 초 달 궤도 유인비행 시도 가능

우주/방산: 스피어(+7.6%), 에이치브이엠(+6.9%), 한국항공우주(+6.2%)

조선: HD현대중공업(+4.2%), 삼성중공업(+7.1%), HD현대마린엔진(+5.6%)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확인할 시간. 저평가 내수주 주목

- 12MF EPS, 12월 15일 403.8p에서 463.7p로 레벨업. KOSPI 5,000 가시권 진입
- 반도체 및 KOSPI 12MF EPS 상승세 주춤. 현실 간 괴리로 인한 조정 불가피
- 순환매 대응, 밸류에이션 저평가 업종 주목, 주도주 조정시 매수 기회

12개월 선행 EPS 463.7p로 레벨업. KOSPI 5,000시대 가시권 진입

반도체 업종 쏠림으로 KOSPI 레벨업 이후 순환매로 사상 최고치 행진 지속. 11거래일 연속 상승은 강력한 상승추세를 시사. 예상보다 강한 실적 전망 상향조정으로 12개월 선행 EPS는 12월 15일 403.8p에서 463.7p로 레벨업. KOSPI 5,000시대 가시권 진입

12월 1일 연간 전망 발간 당시 26년 상반기/연말 추정 EPS는 407p, 428p. 현재는 488p, 521p. 선행 PER 10배 반영만으로도 5,200선까지 상승 가능. 상반기 선행 EPS 추정치 만으로도 선행 PER 11배는 5,368p. 4분기 실적 시즌 중 26년, 27년 이익 전망 상향조정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 확대 예상

반도체 및 KOSPI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 주춤. KOSPI 1개월 실적 대비 주가 변화율 고평가 심화. 기대와 현실 간 괴리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

다만,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공개 이후 반도체 및 KOSPI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 주춤. 9월 ~ 10월 상승국면에서도 선행 EPS 상승세 둔화가 단기 조정의 시작. 1차적으로는 순환매 트리거가 됐으나, 연이은 급등세 이후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진입 가능성 시사.

이와 함께 1)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Risk On 시그널 정점 통과 & 반등. VIX도 역사적 저점권에서 반등. 조만간 Risk Off, 변동성 확대 국면 전개 가능. 2) KOSPI 4,600선 돌파 이후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 연기금 현물 매도 강화.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 3) 미국 증시의 KOSPI 추가 상승 제어 가능성. MACD OSC 하락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인 가운데 Stochastics 매도 시그널 발생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에 따라 주요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은 기대와 현실 간 괴리 조정 불가피. KOSPI 1개월 실적 대비 주가 변화율 고평가 심화. 25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7.7%p, 26년 연간 실적 기준 14.5%p 코스피 상승이 앞서있는 상황. 저평가 업종은 호텔/레저,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 뿐. 저평가 업종에 내수주가 다수 포진. 순환매가 지속되더라도 상승 탄력은 둔화되거나 단기 과열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지난 주말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논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 상승 동력이었던 유동성 모멘텀 둔화 우려 유입 가능. 주요국 실물지표 확인 과정에서 견고함이 확인될 경우 금리인하 기대 후퇴 우려, 내수주 중심의 반등시도 가능

한편,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부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결과도 중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음 Opinion day인 1월 20일 주목

Trading 전략 : 순환매 대응으로 인터넷, 제약/바이오,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필수소비재, 소매(유통) 업종 주목

낙폭과대 업종으로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필수소비재, 소매(유통) 주목. 실제 한중관계의 온도변화와 실질적인 교류 확대 가능성 대비 낙폭 과대한 것으로 판단. 인터넷, 제약/바이오 업종은 금리 반등으로 주가 및 밸류에이션 저평가 영역에서 등락 중. 한국, 미국 채권금리 하향 안정시 저평가 매력 부각 예상

한편,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방산/조선은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 성장 사이클 견고.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면 추가 비중확대 기회로 접근 제안

Weekly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2026년 1월 4주차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 유럽 증시, 1월 효과 지속(ECB, 경제전망 상향+낮은 물가 공식화 긍정 해석)
- 미국-대만 무역 협상 타결. TSMC, 26년 매출 증가 및 CapEx 상향 기대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Taiwan ETF(ECH), TSMC(TSM), 리얼티인컴(O)

[글로벌전략] 유럽 증시, 1월 효과 지속된다. 조정 시, 비중확대

유럽은 지난해 미국 수입가격 인상 지연과 선출하의 기저효과 감안 시 올해 수출 여건 악화가 불가피. 또한 유로화 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는 줄어들 것. 수출 경기 악화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확장 재정을 통한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향후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전망.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훈풍과 함께 1/4분기 상승 흐름 속 얕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확대 필요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Taiwan ETF(EWT): 미국-대만 무역 협상 타결, 반도체 관세 인하의 최대 수혜국

15일 미국-대만 무역 협상 타결 발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했으며, 대만은 1) 2,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 2) 2,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만 기업 신용 보증 등을 약속. 25.11월 기준 대미 수출액은 284.5억 달러(39.0% YoY 이하)로 아세안(18.6%)과 중국(17.1%)을 크게 상회. 특히 전자부품·정보통신기술 제품 비중 90%로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수혜 예상

[미국주식] TSMC(TSM): 25.4분기 최대 이익, 실적 예상치 상회. 미국 공장 추가 건설 계획 발표

25.4분기 순이익은 160.2억 달러로 컨센서스 150.1억 달러를 상회. 웨이퍼 가격 인상, 비용 효율화, 수율 증가 등이 이익률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 2026년 매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AI부문 매출이 2024~2029년 CAGR 35% 성장하며 실적 견인할 것으로 기대. 견조한 AI 수요에 힘입어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 추진. 2026년 CAPEX는 520~56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리츠] 리얼티인컴(O): GIC와 전략적 제휴관계 체결

1월 12일 리얼티인컴은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 제휴 내용은 ① 15억달러 JV 설립 ② 멕시코 BTS 물류 개발 ③ 운영중인 사모펀드 US Core Plus에 GIC가 앵커 투자 참여. JV는 미국 내 고품질 물류 BTS 개발에 집중하며, 우량(IG 등급) 테넌트와 장기 넷리스 계약을 전제로 사전 임차될 예정. 고금리 · 고변동성 환경에서 넷리스 선호 확대 흐름 → GIC는 고정 임대수익으로 현금흐름 안정화, 리얼티인컴은 자본조달 다변화로 성장엔진 강화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